동 서
남 북

대우중공업,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함」 진수

– 대공, 대함, 대잠 임무가 가능한 최신예 전투함

진수식에 참석한 **金泳三**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북한은 언제 어떤 형태의 도발을 또다시 저지를지 모른다"며 "국가안보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對空 對艦·對潛 임무수행이 가능한 한국 최초의 4,000톤급 구축함이 국내기술진에 의해 설계, 건조되어 진수되었다.

대우중공업(대표 윤원석)은 10월 28일 옥포조선소에서 해군으로부터 수주해 기본 설계에서 상세 설계와 건조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최초의 구축함인 '광개토함'의 진수식을 가졌다.

이날 진수된 '광개토함'은 연근해안에서 약 1년간의 해상작전운용시험을 거쳐 해군에 인도돼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광개토함'은 길이 135m, 높이 36.5m, 폭 14.2m, 만재톤수 3,885톤으로서 승조원 286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3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다.

'광개토함'은 주요 武裝으로 주포 1문, 근접방어무기체계 2조, 대함 및 대공미사일, 어뢰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대공, 대함 레이다, 수중탐지 음탐기와 함께 2대의 헬기 탑재가 가능하며, 화생방 보호체계까지 갖춰진 최신예 전투함이다.

특히 이번에 진수된 '광개토함'은 한국 초유의 본격적인 구축함으로서 해군은 국산 호위함(80년 울산함)과 국산잠수함(92년 이천함)에 이어 국산 구축함의 건조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번에 한국 해군의 주력함이 될 구축함 '광개토함'이 진수됨에 따라, 한국해군은 현재 보유중인 헬기탑재 구축함(DDH)의 대체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을뿐만 아니라 향후 전투함분야에서 적정수준의 질과 양을 배합할 수 있게되어, 현대전에서 대공·대함·대잠작전 등 입체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현재 북한은 구축함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호위함급, 다수의 고속정과 약 30여척의 잠수함을 주력세력으로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해군은 '광개토함'을 북한의 수상·수중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해군 전술 기동전대의 기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광개토함'이라 명명한 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바다에서 국가 주권수호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대양해군의 지향을 은연중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추앙을 받는 역사적 인물을 함정 이름으로 쓰기로 했다.

제2회 국방소재 학술대회 열려

– 국방 관련 소재 분야 기술 교류 증진 도모

지난 11월 8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관련 소재분야의 국내외 최근 기술 발전 동향파악과 산학연 기술교류증진 및 협동체제 활성화, 그리고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소재기술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통하여 국방소재 연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회 국방소재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재부서가 창설 당시(1986년) 제 1회 학술대회를 가진 후 10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400여명의 산·학·연·군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국방에 필요한 소재개발 분야에 대한 설명과 개발품의 전시와 함께 전자재료, 금속재료, 요업재료, 복합재료 및 재료분석의 5개 분야 75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관심분야에 대한 열띤 토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높였다.

본 대회를 통하여 민수 및 군수 공용으로 필요한 소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었고, 국방관련 분야에서 소재개발의 주도적 역할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었으며 무기체계 핵심부품인 소재분야에서 산·학·연 뿐만아니라 군과의 협력체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국방소재 학술대회를 4년마다 개최할 계획으로 제3회 국방소재 학술대회는 산·학·연·군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소재개발과 무기체계 적용결과를 준비하여 2000년에 개최할 예정이다.

제2회 기동 시험 발전 세미나 개최

– 기동/공병장비 개발 및 시험 분야 토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1월 19일 창원시험장에서 군, 학계, 산업체 등 관계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기동시험 발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창원시험장 시험능력 소개』와 이어서 서울대학교 김경욱 교수의『로외차량의 기동성 및 토양주행성의 공학적 평가』등 총 1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개최된 제1회 세미나보다는 발표논문 수준의 질적 향상과 참석자들의 열의고조 등 국가 기간산업인 군 기동장비 및 자동차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군·관의 유기적인 기술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세미나를 계속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술기반 확충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더욱이 본 세미나를 통하여 준공 후 2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정상운영하게 된 창원시험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